

Albemarle, 정제촉매 날개 펼까?

HPC · FCC에서 주도적 위치 ... 환경규제에 가솔린 수요가 관건

Albemarle가 Akzo Nobel BV의 매출액 7억5000만달러 정제촉매(Refinery Catalysts) 사업을 인수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제촉매 뿐만 아니라 촉매시장 전반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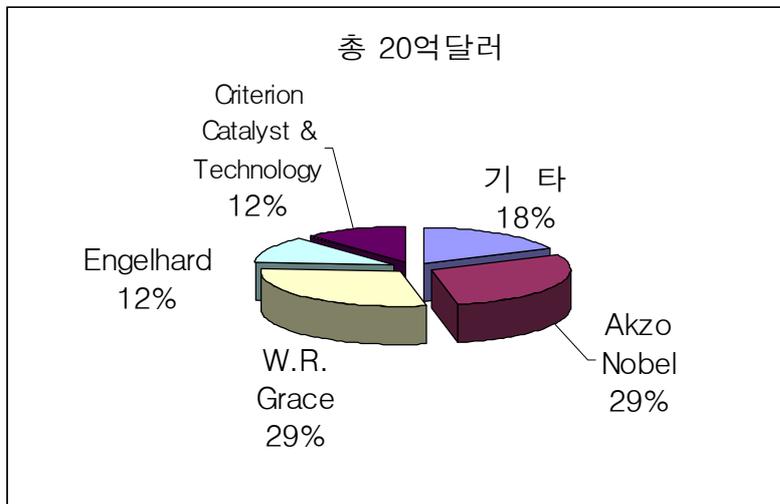
Deutsche Bank Securities에 따르면, Albemarle은 인수를 통해 세계 촉매시장 100억달러 중 20억달러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제부문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Albemarle가 계획대로 2004년 2/4분기까지 Akzo의 촉매사업(매출 4억2000만달러) 인수를 마친다면 세계 최대의 HPC(Hydroprocessing Catalysts), 세계 2번째 FCC(Fluidized Catalytic Cracking) 생산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.

FASC(First Analysis Securities)에 따르면, HPC 시장 9억달러에서는 Akzo가 32%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뒤를 이어 Criterion Catalyst & Technology가 25%, W.R. Grace가 18%를 차지하고 있다. HPC는 여러 종류의 연료에 함유된 유황(Sulfur)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.

FCC 촉매 및 첨가제는 중유를 가솔린(Gasoline)이나 경유제품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FCC 11억달러 시장에서는 Akzo가 27%, W.R. Grace가 35%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. 대부분의 FCC 촉매는 개별 정유기업들의 용도에 맞게 공급되는데 HPC에 비해 기술서비스 제공이 중요시된다.

정제촉매 시장점유율 비교



자료) Akzo Nobel Catalysts

전문가들은 정제 및 촉매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도달해 Albemarle의 정제촉매 사업 인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다만, Albemarle에게는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반면, Kline은 “단지 간판만 바뀔 뿐이나 Albemarle가 촉매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고, Technology Catalysts International는 “Albemarle은 촉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정제촉매 사업도 Akzo보다 잘 운영할 수 있고 기술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<화학저널 2004/09/03>